

# 『古今圖書集成』 · 醫部의 編纂과 意義

安 相佑<sup>1)</sup>

## Publishment of 『KoKeumDoSeoJipSeong』 · EuiBoo and its significance

Ahn Sang Woo

『KoKeumDoSeoJipSeong』 · EuiBoo that is commonly known as ‘EuiBooJeonRok’ is a part of 『HeumJeongKoKeumDoSeoJipSeong』 which was published under Qing empire support and it has a significance in gathering all the results of eastern medicine until 18th century. It contained the best knowledge of the time and considered as the most precious book for two hundred years, but nowadays it is looked away in its value and use.

We could prescrib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this classic medical book has and furthermore, embody the basic knowledge necessary for constructing database by studing compilation and editions. This is the significance the classic 『DoSeoJipSeong』 ha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digital EuiBooJipSeong which will be newly shown as a digital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

### 첫 머리에

이 책의 정식 명칭은 『欽定古今圖書集成』<sup>2)</sup>으로 황제가 친히 명령하여 고금의 모든 도서를 모아 만들었다는 의미이다. 대략 康熙帝 때의 陳夢雷(1651~1723)가 시작한 것을 雍正帝 때 蔣廷錫(1669~1732)이 이어받아 1725년에 완성하였다.

총 권수 1만 권, 목록 40권, 약 1억5천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양적인 면에

---

1) 韓國韓醫學研究院

2) 이하 全稱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圖書集成’으로 약칭.

서는 『永樂大全』에 버금가는 것이지만 현재까지 完整無缺하다는 점에서는 현존하는 동양 최대의 백과전서로 손꼽히며, 당시에는 이를 類書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類書로 꼽히는 『太平御覽』, 『冊府元龜』, 『淵鑑類函』 등의 실제 분량을 따져보면 『圖書集成』의 불과 10/1에 지나지 않는다.

이 책의 내용은 삼라만상을 포괄하고 있으며 전서를 6회편으로 나누어 처음 三編은 천지인의 순으로 배치하였다. 天文을 기록한 曆象彙篇, 지리·풍속의 方輿彙篇, 제왕·백관의 기록인 明倫彙篇, 의학·종교 등의 博物彙篇, 문학 등의 理學彙篇, 과거·음악·군사 등의 기록인 經濟彙篇 등의 6회편으로 되어 있다. 이를 다시 32典 6,109部로 세분하였다. 각 부는 彙考·總論·圖表·列傳·藝文·選句·紀事·雜錄 등으로 구분된다.

원판본은 구리활자판인데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하며, 현재 이용되는 대부분의 流布本은 1884년 상하이 上海圖書集成局에서 간행된 것을 저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 도서집성국의 판본은 오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90년 상하이 上海同文書局이 영인한 것에는 「考證」이 첨부되어 있어 유포본 보다는 비교적 정확하다.

1701년(康熙40) 10월 편찬 작업을 정식으로 개시하였던 陳夢雷는 全書를 滙編, 典, 部 등 3단계로 나누고 部 아래 細目을 나누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종류의 분류방법은 의심할 것도 없이 유서 편찬체제 중에서도 독창적이고 새로운 방식이며 5년이 넘도록 고통스러운 작업을 지속한 끝에 드디어 1706년(康熙45) 4월 3600여권의 거대한 類書의 草稿를 완성하였다.<sup>3)</sup>

흔히 ‘醫部全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古今圖書集成』·醫部는 淸 황실의 지원아래 방대한 규모의 편찬사업을 거쳐 이룩되었던 『欽定古今圖書集成』의 일부로 의학분야에 있어서도 18세기까지의 동양의학의 성과를 집대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당대 최고의 지적 수준을 담고 200여 년간 최고의 귀중본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 가치인식과 활용도 측면에서 점차 외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한자를 기록매체로 하는 대부분의 동양고전문헌이 갖고 있는 지식전달체계상의 난점이라든가 해독상의 문제점을 제쳐 두고서라도 필요한 지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어야한다는 類書의 특성을 되살려야만 한다는 절대명제를 갖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방대한 한의고전문헌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오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필요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우선해야할 대상으로 이 의학전서를 택하였다. 이 작업은 원문의 전산입력과 교감작업을 먼저 진행하였는데, 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현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이 작업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 일이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원저의 편찬과 간행, 조선의 도입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이 고전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규정하고 나아가 편제 분석, 판본 조사

3) 이상 戚志芬. 中國的類書, 政書和縱書(中國文化史知識縱書). 北京: 商務印書館, 1996 등 관련서 참조 요약.

등을 통해 전서의 규모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것은 곧 고전문헌 圖書集成이 갖는 의미이자 새롭게 선보일 전산 지식정보시스템으로서의 醫部集成에 부여해야 할 의의를 규정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1. 원저의 편찬과 收藏

康乾之治로 통칭되는 청조 문화 최극성기에 康熙연간에 이루어진 『圖書集成』과 『康熙字典』, 그리고 乾隆帝가 완성한 『四庫全書』는 동양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고금도서집성』은 康熙帝가 서문을 짓고 나서 雍正6년(1728)에 初刊되었다. 비록 卷首의 署名에는 康熙帝가 欽定하고 戶部尙書 蔣廷錫 등이 교정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편찬자는 바로 陳夢雷라 할 수 있다.

□ 저자 陳夢雷: 곡절 많은 인생과 정치적 격변

陳夢雷(1651~1723 이후)는 자가 則震 또는 省齋, 만년의 호가 松鶴老人이라 하였고 別號로 天一道人이라는 호를 사용하였다. 1651(順治8년)에 福建省 侯官縣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즐겨하여 21세(康熙9)에 진사가 되고 庶吉士에 뽑혀 翰林院 編修에 임명되었다. 1673년(康熙12)에 閩으로 돌아가 잠시 부모를 돌보던 중 복건성에서 반란<sup>4)</sup>이 일어나 청조에 반기를 들자 이에 협조하지 않고 무려 5년간이나 절간에 갇혀 있었다. 이때 耿精忠이 병사를 일으키고 吳三桂가 內應하여 閩中의 여러 名士들을 위협하였는데 그 중에는 陳夢雷 부자도 들어 있어 거짓 벼슬[僞官]을 받으라는 위협을 받았다. 그러나 실상 陳夢雷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와 동문수학한 절친한 친구인 李光地 함께 적들을 물리칠 計巧를 공모하고 조정에 복건성의 허실을 몰래 알렸다. 다만 당시에 僞官을 받았던 陳昉이란 자가 있었는데 이것이 京師에는 夢雷라고 와전되어 잘못 전해졌던 것이다.

세 곳의 外蕃에서 일어난 반란이 평정되고 나자 반도들에게 부여한 죄목으로 하옥되는 무고를 당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斬刑할 것으로 의논되었지만 李光地는 반역도를 물리친 공을 독차지하려고 그를 위해 변호하지 않았다. 다행히 聖祖(康熙帝)가 특별히 형을 감해주어 사형을 면했지만 오래지 않아 奉天 尙陽堡(지금의 瀋陽)로 쫓겨나게 되었다.

1698년(康熙37) 황제가 동쪽을 巡撫할 때 기회를 얻은 그는 시를 바쳐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며 왕명으로 소환되어 京師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듬해 懋勤殿에 들어간 그는 황제의 셋째 아들인 誠親王 胤祉의 侍讀이 되어 그를 모시게 되었다. 이 무렵 그

4) 清初의 이른바 三藩의 亂으로 吳三桂, 尚可喜, 耿精忠이 청조에 반기를 들고 일으킨 반란.

는 궁궐을 출입하면서 많은 知友를 얻었으며, 황제의 恩德에 感泣하여 혼자 힘으로 도서집성을 엮게 되었다. 1701년(康熙40)에 시작하여 1706년(康熙45)에 『古今圖書滙編』을 완성하였고 후에 『古今圖書集成』이라는 서명이 하사되었으며 총재에 임명되었다. 이때 그의 저작 『松鶴山房文集』<sup>5)</sup> 권2에는 「進滙編啓」라는 한편의 글이 있는데 여기에는 편찬과정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그에게 이렇듯 좋은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여 강희제가 재위 61년만에 暢春園에서 崩御하자 世宗 胤禛이 즉위하였다. 옹정이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게 되자 다시 변방으로 추방되는 유배형을 받았는데, 기실은 청왕조 통치계급 내부의 정치권력 투쟁과 유관한 것이다. 강희 재위 중반 이후 황태자를 옹립하고 폐위시키는 일이 반복되었는데 여러 皇子들이 각기 黨을 지어 태자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모략을 꾸밈고 극렬한 암투를 벌였다. 옹정은 황제가 되자 자신과 뜻을 달리한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皇子들을 차례로 死地에 보냈다. 陳夢雷는 정적인 皇三子 胤祉의 門客이었기 때문에 의당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었고 당연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따라서 아낌없이 加증죄(欲加之罪)를 적용하여 지나간 刑案을 들춰내고 증인의 입을 빌어 멀리 東北으로 다시 추방하였다. 이때 그는 이미 72살의 백발노인이었는데 멀리 邊方의 국경지역으로 수레에 실려 길을 나서 거친 산과 험한 고개를 넘어 가게 되었으니 자연히 살아서 돌아올 희망이 없었다. 끝이어 그가 세상을 하직함으로써 도서집성과 같은 거대한 저작의 진정한 편찬자 陳夢雷의 이름 또한 삭제된 채로 200여 년 동안 매몰되어 있었다. 그가 남긴 저술로 『松鶴山房文集』과 『閑止書堂集』이 있고 『周易淺述』 8권, 『盛京通志』, 『承德縣志』, 『海城縣志』, 『蓋平縣志』 등이 있다.<sup>6)</sup>

#### □ 저작 과정

『圖書集成』은 1701년(康熙40) 10월에 편수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사실상 陳夢雷가 宮에 들어간 이후부터 이미 ‘顧問’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곧 때때로 ‘자료를 간편하게 간추리고 부류별로 나누어 갈래짓는 일이었다. 이러한 작업은 나중에 『도서집성』의 원형을 이루었다. 50여 년의 독서 경력에 만여 권의 책을 섭렵했다는 그였기 때문에 방대하고 풍부한 학식을 무기로 전대에 이룩한 비슷한 종류의 각종 서적에 내포되어 있던 적지 않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들 서적의 범위가 편협하여 고금이 불통하고 체계가 완전치 못하며, 찾아보거나 검색하기 곤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는 다시 한번 수정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종류별로 등급과 분류가 잘 이루어진 대형 類書を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그의 이러한 일념은

5) 康熙는 일찍이 그에게 對聯 한쪽을 내렸는데 ‘松高枝葉茂, 鶴老羽毛新’이라 하였다. 松鶴이란 이름은 이로 인연하여 붙인 것이다.

6) 이상 여러 문헌 및 張搗之, 沈起煒, 劉德重. 『中國歷代人名大辭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등을 참조하여 요약.

胤祉의 지지를 얻게 되어 皇子의 協一堂 장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는 한편 이 밖에도 책을 베끼거나 抄寫하는 書生을 고용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받았다. 이 類書는 고급역대 서적의 모든 지식을 포괄하였다는 의미에서 『古今圖書匯編』이라고 이름지었다.

1701년(康熙40) 10월 편찬 작업을 정식으로 개시하였다. 陳夢雷는 全書를 匯編, 典, 部 등 3단계로 나누고 部 아래 細目을 나누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종류의 분류방법은 의심할 것도 없이 유서 편찬체제 중에서도 독창적이고 새로운 방식이며, 다시 條理와 系統性을 가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덧붙여 풍부한 자료를 모두 수용할 수 있었다. 자료의 수록범위에 대해서는 ‘무릇 온 세상(六合) 안에 있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모두 다 거론한다’는 원칙에 근거를 두었고 수록한 문자는 儒家經典과 역대 正史에 대해 단 한 글자라도 빠트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稗史子集’까지도 단지 ‘열에 한둘만 잘라냈다.’고 하였다. 때문에 수록재료에 있어서 前代의 類書에 비하여 훨씬 풍부하다. 편찬 중 陳夢雷는 먼저 대상 서적의 관련 부분을 찾아본 다음 部類를 나누어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書生이 篇別로 나누어 抄錄함과 아울러 그 원래 출처를 注記하여 밝혀놓았다. 그런 뒤에 손수 整理, 匯編하여 내용을 체계화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5년이 넘도록 ‘눈으로 들여다보고 손으로 찾아내느라 아침저녁으로 눈코 뜰 사이 없이’ 고통스러운 작업을 지속한 끝에 드디어 1706년(康熙45) 4월 3600여권의 거대한 類書의 草稿를 완성하였다.

陳夢雷는 장차 이 책의 초고를 康熙帝에게 獻上하기를 바라지 않았으며 ‘무엇을 남기는 것이 마땅하고 무엇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며, 어떤 곳을 나누는 것이 적당하고 어떤 곳을 합하는 것이 적당할까?’를 결정하여 전서의 체례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개정하곤 하였다. 수록한 서적의 범위에 있어서 協一堂과 자기 집안의 家藏書에 한정되어 수록 서적이 미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장차 ‘秘府의 藏書’를 사용하여 미흡한 부분을 확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와 함께 해당 서적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江南과 浙江 지방의 都會地에 널리 別本 서적을 모아들이는 한편 정밀하고 힘이 좋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부분을 나누어 讎校하도록 하여 자획 하나라도 어긋나고 잘못된 곳이 없도록 하기를 건의하였다. 이러한 건의는 두말할 것도 없이 모두 합리적인 것이지만 다만 이 당시 최고 통치집단 내부에서 발생한 격렬한 황통 싸움으로 말미암아 강희제는 이러한 문제에 눈 돌릴 여가가 없었으므로 『古今圖書匯編』 초고의 수정 작업은 실상 중단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雍正제 즉위 후 陳夢雷는 변방 밖으로 쫓겨 나는 유배형을 받으면서 『고금도서회편』의 초고도 역시 빼앗기게 되었다. 아울러 書名이 『古今圖書集成』으로 바뀌게 된다. 비록 이 책을 인쇄하여 刊行할 때 내용 중의 類目 명칭과 권수가 다소 변경되고 또한 陳夢雷의 姓名도 빠지게 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모두 陳氏의 舊本 그대로이다. 陳夢雷가 바로 이 거대한 문헌정리 작업을 진행하는데 막대한 공헌을 바친 첫 손꼽히는 훌륭한 학자임은 의심할 바 없다.<sup>7)</sup>

□ 교정·인출 과정

교정작업의 주역은 蔣廷錫(1669~1732)으로 되어 있다. 그는 江蘇省 常熟人으로 字는 揚孫, 號를 酉君, 西谷, 南沙라 하였다. 河南按察使로 南陽 白蓮教의 수괴를 處刑하여 일거에 공을 세우고 雲貴總督에 올라 이름을 떨친 蔣陳錫(1653~1721)의 아우이다. 康熙42년 進士가 되고 처음에는 供奉內廷으로 천거되었다가 雍正 연간에 여러 차례 禮部侍郎직에 올랐으며 『聖祖實錄』의 총재를 맡았다. 벼슬이 文華殿 太學士에 이르렀다. 시를 잘 지었고 그림으로도 이름이 높았다. 시호는 文肅이고 저술로 『靑銅閣集』 등이 있다.<sup>8)</sup>

陳夢雷는 평생 비참한 일생을 지냈지만 그가 온갖 고통을 감내하면서 편찬한 『圖書集成』은 인간 세상에 남아 후세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18세기 초 중국의 인쇄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皇宮의 武英殿에서 책을 인쇄하는 공장이 문을 연 것이었다. 이 공장에서는 銅活字를 사용하여 『도서집성』을 인쇄하였는데, 1726년(雍正4) 드디어 6년만에 결실을 보아 인출을 완료하였다. 1차로 모두 64부와 樣本 1부를 인쇄하였는데 正文 1만권, 목록 40권의 분량을 5020책으로 나누어 523函으로 포장하였다.

武英殿에서는 木活字와 銅活字를 개량하여 아름다운 서체의 활자를 개량하고 板式을 새로 개발하였는데 이 때의 주역이 바로 조선족의 후예인 金簡(?~1794)이었다. 그가 취진판 활자의 개량과 새로 개발한 인쇄방법의 요체를 적어 황제에게 개진한 내용이 남아 전하는데 『武英殿聚珍版程式』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은 『四庫全書』안에도 남아 전하는데 세계 인쇄기술 발전의 역사상 손꼽히는 저술이라 할 수 있다.<sup>9)</sup>

조선인이 펴낸 『동의보감』이 『도서집성』에 대폭 인용되고 조선인의 후예인 金簡이 이 책의 인출간행에 크나 큰 공헌을 남겼다는 것은 동양문화 전반의 상호교류 이외에도 여러 모로 기막힌 인연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 南北七閣과 『圖書集成』의 秘藏

『도서집성』은 인출 부수가 적어 당시에 이미 진귀한 서적에 속했기 때문에 內府의 文淵閣, 乾清宮, 皇極殿 등과 같은 장소에 비치하였다. 건륭 연간에 『四庫全書』를 편

7) 來新夏 等著. 『中國古代圖書事業史』.(中國文化史縱書) 上海:上海人民出版社, 1990, pp.367-369.

8) 張搗之, 沈起煒, 劉德重. 『中國歷代人名大辭典』.

9) 四庫全書와 朝鮮人 金簡의 활약에 대해서는 邊麟錫. 四庫全書와 韓國人 副總裁 金簡에 대하여. 東洋史學研究(제10집), 1976을 참조.

수할 때 四庫館으로 七閣을 따로 건립하였는데 館閣마다 각각 『도서집성』을 1부씩 보내었다. 黃愛平의 『四庫全書纂修研究』에는 이 때의 分藏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文津閣, 文源閣, 文淵閣, 文溯閣의 內廷四閣을 建置하여 四庫全書を 수장할 때 매양 고금도서집성을 먼저 수장케 하는 것이 전제되었다. 아울러 사고전서의 書函 양식을 본떠 고금도서집성 전부를 裝幀하여 이들 四庫閣에 먼저 貯藏케 하였다. 따라서 ..... 중략 ..... 일찌기 乾隆47(1782)에 揚州 天寧寺 行宮과 鎮江 金山寺 行宮에 각기 古今圖書集成을 간수하게 하였다. 이때 金山寺 行宮 왼쪽에 藏書閣에을 짓고 古今圖書集成 1질을 수장케 하고 文宗閣이라 이름하였고 이듬해 揚州 大觀堂 한 칸에 마련한 藏書樓가 완성되자 역시 도서집성 전질을 모신 다음 文滙閣이라는 이름을 내렸다. 이후 杭州 聖因寺 뒤쪽에 있는 玉蘭堂을 보수하여 文瀾閣을 중창하였는데 옥란당 동쪽의 藏書堂에는 이미 도서집성을 수장하고 있었다. 뒤에 四庫全書を 수장하게 되는 이들 江浙三閣의 四庫閣에는 모두 一層에 도서집성을 비치하였고 책은 황색 비단(絹)으로 장정되어 있었다.”<sup>10)</sup>

이들 南北七閣은 청 정부의 국가장서기구로써 서적의 보관과 傳存에 큰 역할을 했는데, 乾隆46년 이전에는 『四庫全書』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北四閣에 먼저 『도서집성』을 수장케 하였고 南三閣에는 이미 『도서집성』이 비치되어 있었다.<sup>11)</sup> 또 七閣의 分藏과 별도로 大臣에게도 나누어 下賜하였는데 건륭 연간에 四庫館의 總裁와 副總裁에게 모두 1부씩 나누어주었다.<sup>12)</sup>

清 乾隆帝는 매우 학문에 열중했던 인물로 그를 가르쳤던 서양인들이 밑천이 바닥 날까 두려워 피할 정도였다. 또 몹시 책을 좋아하여 많은 서적을 발간하기도 했지만 민간의 좋은 책을 수장한 장서가문의 책을 구하기 위해 황실의 책을 주고 각지의 장서가가 소장한 책과 바꾸게 함으로써 서로의 기호와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청 정부에서 많은 관찬 대형서가 편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륭제는 있는 책으로써 없는 책과 바꾸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乾隆39년 5월에는 500종 이상의 도서를 바친 浙江의 鮑士恭 등 4집안에 각기 상으로 圖書集成 한 질씩을 하사하였다.<sup>13)</sup>

## 2. 조선의 도입 과정

10) 黃愛平. 『四庫全書纂修研究』(清史研究縱書).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9, pp.152-164. 제2장 四庫全書의 貯藏과 閱覽 발췌요약.

11) 來新夏. 『中國古代圖書事業史』, pp.322-323.

12) 戚志芬. 『中國的類書, 政書和縱書』, p.90.

13) 來新夏. 『中國古代圖書事業史』, p.317.

□ 正祖大王과 『圖書集成』의 구입과정

洪大用, 朴齊家를 비롯한 조선 문인들이 연경에서 열정적으로 연경학계와 교류하면서 그곳의 학풍을 받아들여지게 된 데에는 정조대왕의 후견과 후원이 매우 컸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규장각을 세워 학술자료를 모으게 하고 그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檢書자리에 朴齊家·李德懋·柳得恭·徐相修 등 비록 庶出이지만 능력 있는 北學派 학자들을 채용한 것부터가 말할 수 없이 큰 학예진흥책이었다.

뛰어난 안목과 식견의 소유자인 정조는 학문의 연찬과 문화의 진흥을 위해 힘썼는데 학술의 기본자료를 모아 학자들에게 연구케 하는 일에 무한대로 지원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바로 이 『도서집성』의 전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다.

정조는 1776년 사은부사로 떠나는 徐浩修(1736~1799)에게 『欽定古今圖書集成』 1만 권 5200책을 구해오게 했다. 이 책은 강희제 때부터 시작하여雍正 연간까지 근 50년에 걸쳐 완성된 ‘미증유의 類書’로 대단한 귀중본이었다. 정조의 명을 받은 서호수는 이 귀중본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이 방대한 희귀본을 좀처럼 구할 수 없었다. 결국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침내 사람을 앞세워 翰林院에 뇌물을 진탕 주고서야 기어코 銅活字初印本 한 질을 구해서 몇 수레에 나누어 싣고 한양으로 가져왔다.<sup>14)</sup>

□ 圖書集成의 收藏

정조는 너무 기뻐서 책의 장정을 새로 잘 고쳐서 창덕궁 규장각의 皆有窩에 소장케 하였다. 본래 규장각의 부설 藏書閣에서는 조선책은 書庫에, 중국책은 闕古館에 보관했는데 중국 책이 늘어나면서 새로 증축한 서고가 개유와였다. ‘개유와’란 ‘모든 것이 다 있는 집’이라는 뜻이니 그 기상을 알 만하다.<sup>15)</sup>

이 책은 현재 규장각 도서실에 完帙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정조는 그 유명한 사고전서를 구입해 오려고 했지만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던 일이었고 『도서집성』을 우여곡절 끝에 구해온 것도 대단한 쾌거였다.

왕실도서를 종합적으로 봉안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는 정조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즉위 원년(1776) 7월 창덕궁 禁苑의 북쪽에 규장각을 세웠다. 애초에 규장각의 설립을 구상하고 奏請한 것은 세조 때의 訥齋 梁誠之였다. 그는 세조3년(1457) 집현전이 혁파되면서 여기서 소장하던 책을 정리할 필요가 있게 되자 체계적인 관리 제도가 필요함을 절감하고 홍문관을 설치하고 규장각을 지어 왕실도서를 따로 봉안하고자 했다. 세조는 이러한 취지에 적극 찬동했지만 이 제도는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채 지내오다가 정조대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御製閣이라는 이름하였는데 나중에

14) 유흥준. 「완당평전」 서울: 학고재, 2002, pp.76-78.

15) 유흥준. 「완당평전」, pp.76-78.

숙종의 御偏을 따라 奎章閣이라 이라 이름하였다. 규장각은 앞서 등장한 양성지의 설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를 기리는 의미에서 정조 15년 양성지의 문집인 『訥齋集』과 규장각 관원으로 있는 30여명 외손들의 계보를 작성하여 『梁訥齋外裔譜』를 간행하였다.<sup>16)</sup>

文襄公 양성지는 규장각을 비롯한 서적의 간행과 수장에 관한 치적뿐 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특히 의약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모로 영향을 끼쳤는데, 그중 첫 손 꼽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醫方類聚』의 교정을 들 수 있다.<sup>17)</sup> 그는 이외에도 의료행정 분야에 많은 공적을 쌓은 바 있다.<sup>18)</sup>

양성지의 民生救療 사업은 역대 인물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이는 치적으로 일찍이 湖巖 文一平도 『朝鮮名人傳』에서 다음과 같이 찬탄한 바 있다.

“先生은 民生을 위하여 …… 各道郡縣에 醫療機關의 設置를 主張함과 같음은 참말 感謝할 바이다. 그 설에 가로되 疾病은 生民의 가장 苦로워하는바이니 京中에는 비록 醫師와 醫員이있어서 診病施藥하나 地方에는 그렇지 못하여 窮村人民이 한번 疾病에 걸리면 그 辛苦의 狀을 참아 볼 수 없다. 地方의 大小를 따라 醫員數의 多寡를 定하여 典醫監에 와서 醫術을 研究한 後 各該 地方에 돌아가 診病施藥하게하고 監司로 하여금 그成績의 良否를 調査하여 褒貶을 行케하면 이 같은 惠政이 없겠다고 하였다.”<sup>19)</sup>

이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양성지의 『의방유취』 교정작업이 『도서집성』의 편찬과정과는 묘하게도 비슷한 궤적을 거쳤다는 점이다. 둘 다 모두 초편의 완성 이후 다시 교정작업을 거쳤다는 것부터 매우 유사한 진행과정을 거쳤다. 또 주 편찬자인 陳夢雷가 皇三子인 誠親王 胤祉의 정치적 실각에 따라 완성을 보지 못한 것과 『의방유취』가 초편 완성 이후에 간행되지 못한 것이 세조의 집권과 安平大君의 거세에 따른 일련의 정치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비춰볼 때 방대한 전서의 편찬과 간행과정이 상당 부분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좌우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거대 규모의 類書가 정치적 필요(통치집단 내부모순의 완화)에 따라 진행되었음은 기지의 사실이거니와 근대 중국의 문호인 魯迅은 「太平御覽」이나 「太平廣記」와 같은 대형 유서의 편찬의도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유서 편찬)사업에 있어서 정부의 목적이란 이런 사업에 다양한 인

16) 李鍾默, 「조선시대 王室圖書의 收藏에 대하여」, 한국서지학회 추계학술발표, 2002. 10, pp.3-14. 발췌요약.

17) 자세한 내용은 줄거 「醫方類聚의 편찬과 朝鮮前期 의서」. 한국 의사학회지, 2000. 참조.

18) 자세한 내용은 줄거 「訥齋 梁誠之의 醫藥史蹟」. 한국 의사학회지, 2000. 참조.

19) 朝光社 편. 『朝鮮名人傳』(下), 서울: 朝光社, 1948. p.197.

력을 수용하고 배양하여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 반발세력을 경감시키려는 의도였을 뿐이며, 애당초 문화예술에 뜻을 두어 그런 것이 아니다.....”<sup>20)</sup>

어찌됐던 양성지의 교정작업은 우여곡절 끝에 5년만에 마무리되는데 陳夢雷가 완성보지 못하고 죽은 『도서집성』 역시 蔣廷錫에 의해 완료되어 간행된다.

#### □ 朝鮮의 『圖書集成』 活用

그러면 이 대단한 귀중본이 조선에 들어와 어떻게 쓰였을까? 『도서집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활용된 것은 무엇보다도 華城 築城에 사용된 『機器圖說』을 들 수 있다.

“고금도서집성 5,022책은 1777년(정조1) 2월에 중국 북경에서 구입한 것으로 오늘날까지 완질로 보관되어 있다. 1792년에 정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器機圖說」을 丁若鏞에게 보내어 起重架를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였는데, 기중가는 1794년에 華城(수원성)을 건축할 때에 사용되어 많은 인력을 절감하였다. 규장각이 소장한 완질의 고금도서집성은 현재 중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본으로 청으로부터 새로운 학문정보를 수용하는데 적극적으로었던 정조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sup>21)</sup>

### 3. 판본과 전본

#### □ 原刊本

『圖書集成』은 雍正6년(1728) 內府에서 銅活字를 사용하여 印行하였는데 당시 모두 합하여 64부와 見樣書 1부를 인출하였다. 매부 5020책이요 522函에 나누어 포장하였으며 開化榜紙와 太史連紙로 인쇄한 두 가지 印本이 있다.<sup>22)</sup>

초간본은 내부 동활자 印本이지만 그 중에 插圖는 목판으로 刻印한 것이다. 半葉은 9행이고 行20字로 白口, 四周雙邊, 單線魚尾로 되어 있다. 전서는 총 1만 권에 목록 40권 6편32전6109부로 나뉘어져 있다. 책은 5000책으로 製冊되어 있고 523函에 나누어 들어 있는데 函마다 10책 혹은 8책으로 일정치 않다. 목록은 20책으로 2함에 나누어 있으며 총계525함 5020책이 된다. 모두해서 60부를 인출했는데 開化紙와 太史連紙로 인쇄한 두 가지 印本이 있다. 원본의 전질은 이미 세상에 찾아보기 힘든 희귀본이

20) 『魯迅全集』. 제9권. 戚志芬의 상계서, pp.14-16.에서 재인용.

21) 金文植. 「奎章閣의 어제와 오늘」. 서울대학교규장각. 인터넷 자료.

22) 來新夏. 『中國古代圖書事業史』, pp.371-372.

되었으며 故宮博物院 圖書館과 北京圖書館에 전질이 소장되어 있다.<sup>23)</sup>

#### □ 流布傳承과 再版本

일반적으로 明代에 비롯되었다고 보는 銅活字本은 清代의 『圖書集成』의 경우, 그 중에 의서가 몇 종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통행되는 中華書局 영인본은 원래의 銅活字本 4면을 1면으로 축소하여 影印한 것으로 글자크기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筆劃이 선명하여 오히려 읽기에 지장이 없다.<sup>24)</sup>

초간본은 雍正, 乾隆 연간에 전후 십여 부가 공을 세운 大臣들에게 頒賜되었고 四庫를 開館할 때 책을 많이 獻納한 藏書家와 南北7閣에 안치되었고 나머지는 內庭에 보관하였다. 근대 이후 전란을 겪으면서 初刊本으로 남아있는 것은 매우 희귀하고 해외의 영국, 불란서 등과 같은 나라에 전질 혹은 殘本이 보존되어 있다.<sup>25)</sup>

해외에 소장된 초판본으로 영국 런던의 大英博物館에 완전한 1부가 남아 있는데, 제본을 고쳐 745책의 洋裝 巨帙로 改裝하여 보관되어 있다. 프랑스와 독일에도 이들 초간본의 잔본이 남아있다.<sup>26)</sup>

이외에 중국 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는 겨우 故宮博物院에 소장된 4부가 전부이다. 인쇄 부수가 적어 당시 중국 안에서도 구경 한번 하기 어려웠는데 1888년(光緒14) 영국인 安·美查, 弗·美查 형제가 자금을 모아 上海에 ‘圖書集成印書局’을 설립하고 鉛活字를 사용하여 1500부를 翻印하였는데, 매부 1620책이고 따로 목록이 8책이었다.<sup>27)</sup>

1893년(光緒19) 淸 정부는 上海 同文書局에 명령하여 初刊 銅活字本을 그대로 영인한 石印本 100부를 인출하였는데 뒤에 尤松琴의 「考證」 24권이 붙어 있다.<sup>28)</sup> 이 『古今圖書集成考證』 24책은 銅活字本과 달리 石印本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튼 구별점이다.<sup>29)</sup> 이때부터 유통된 傳本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외에도 영국인 자일스(翟理斯)와 일본인 瀧澤俊亮이 다시 분류하여 만든 색인이 있어 이 책을 사용하기 쉽게 하는 방안을 제공해 주고 있다.<sup>30)</sup>

제4차 인쇄는 1934년 上海 中華書局에서 銅活字 原版本을 橡皮版을 사용하여 縮小 影印한 것이다. 이때 쓰인 동활자본은 康有爲의 舊藏本을 구입하여 사용하여 축소 영

23) 魏隱儒. 『古籍版本鑑賞』.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1997. pp.110-111.

24) 張燦理. 『中醫古籍文獻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379.

25) 來新夏. 『中國古代圖書事業史』, pp.371-372.

26) 戚志芬. 『中國的類書, 政書和縱書』, p.90.

27) 戚志芬은 이것을 이른바 美查版이라 부르는데, 錯誤와 缺落된 곳이 매우 많다고 하였다.

28) 戚志芬은 1894년 인출 완료했으며 上海棧房에 큰 화재를 만나 傳本이 매우 드물다고 했다.

29) 裴芹. 古今圖書集成 研究, 北京圖書館出版社, 2001, p.144에는 작자가 龍繼樸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하지 못 했다.

30) 來新夏. 『中國古代圖書事業史』, pp.371-372.



清光緒16年 庚寅(1890) 同文書局 影印本  
清光緒20年 甲午(1894) 至23年丁酉(1897) 縮印本(影印本)  
1934년 上海 中華書局 影印 銅活字版本  
1937년 上海 通俗圖書刊行社 校勘, 上海 會文堂新記書局 鉛印本  
1986년 中華書局 巴蜀書社 聯合 縮版影印本

의학 부문만 단독으로 발행한 판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959년 人民衛生出版社 印本(鉛印本)  
『圖書集成醫部全錄』12冊  
1988년 山西科技出版社 標點 出版(中國古籍整理叢書)  
『古今圖書集成·醫部精華』1冊

□ 국내 소장 板本

여하튼 『도서집성』은 중국에서 도입된 이후 규장각 부속 서고인 皆有窩에 수장되었고 『奎章閣書目』에 실려있는 ‘闕古觀書目’에서 서명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 소장된 판본으로는 정조 당시에 도입된 원간본 1질 이외에 여러 가지 판종의 다양한 판본이 유입되었으나 대부분 중국 출판본의 영인본류이다.

1934년 上海 中華書局影印 銅活字版本  
소장처 : 성대 尊經閣  
1977년(民國66) 『古今圖書集成』中國學術類編. 臺北: 鼎文書局  
소장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985년 中華書局, 巴蜀書社 연합 縮版영인본 『古今圖書集成』  
소장처 :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1991년 人民衛生出版社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全12책  
소장처 : 국립중앙도서관, 경희대, 원광대, 한의학연구원 등

현재 조사된 국내 영인 古今圖書集成·醫部の 출판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보급되어 있다.

- (欽定古今) 圖書集成 醫部全錄. 서울: 成輔社 1976.
- (欽定古今) 圖書集成 醫部全錄. 서울: 大星文化社 1986.<sup>34)</sup>

34) 1937년 上海 通俗圖書刊行社 校勘, 上海 會文堂新記書局 鉛印本の 臺灣 新文豐出版公司 발행 영인본의 재영인.

- 醫部全書. 출판처 미상, 1987년경.<sup>35)</sup>
- 古今圖書集成. 서울: 景仁文化社, 1989.
- 圖書集成醫部全錄. 서울: 醫聖堂 1993.

따라서 이상의 조사 결과로 보아 정조의 초간 동활자본 도입 이래 다종 다양한 이종 판본들이 끊임없이 도입되었으며, 특히 醫部만 별도로 출판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에 비해 이 책을 이용한 연구성과는 비교적 잘 눈에 띄지 않는다. ‘도서집성’을 주제로 한 국내 연구논문으로는 단 1편만이 검색된다.

劉世鉉. 「弓人爲弓에 대한 小考-古今圖書集成의 기록을 바탕으로」. 육사학예지, 1997.

보도기사는 오래 전 다음과 같은 제목이 눈에 띈다.

每日申報 「圖書集成」 1935-01-31

일간신문인 매일신보의 첫 면 題號 바로 옆의 머릿기사로 圖書集成 기사가 실린 것도 의외이거나 매우 흥미로운 기사이다. 내용인즉, 이날이 바로 세계 최대의 類書인 『도서집성』이 완성된 날임을 축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곧 이날이 210주년 되는 날을 기념하면서 전서의 규모와 체제, 인쇄사상의 의의, 陳夢雷의 업적, 전본과 조선의 도입 과정, 판본의 종류 등을 소개하고 上海 中華書局的 印本이 보급됨을 축하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 □ 국제적인 성가와 연구서 및 색인의 발행

1826년에 간행된 일본 丹波元胤의 「中國醫籍考」에는 2600여종의 醫方書가 실려 있지만 『四庫全書總目提要』는 다수 인용된 반면 오히려 『도서집성』은 서명조차 거론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이 책의 국제적인 성가는 만만치 않은 것으로 일찍부터 외국인들은 ‘康熙百科全書’ 혹은 ‘中國百科全書’로 불려졌으며 목록과 색인을 만들거나 글로 적어 소개하거나 혹은 중요한 참고서적으로 나열하였다. 예컨대 1878년 영국의 中國評論지에는 ‘中國皇家藏書目錄’이 실렸는데, 그 중에 『永樂大典』, 『淵鑑類函』, 『佩文韻府』와 함께 『도서집성』이 올라있다. 영국인 자일스는 일찍이 『도서집성』과 『대영백과사전』 11판을 비교하였는데 적어도 3-4배 분량이 더 많다고 하였다. 그는 또 색인을

35) 臺灣: 藝文印書館 영인본의 재영인.

만들기도 하였는데, 『中國百科全書字順索引』이라 이름 붙였다.

이외에도 이 책을 중요 참고서적으로 사용한 국외학자는 많지만 무엇보다도 영국의 저명한 과학문명사가 조세프 니이담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명 李約瑟로 알려진 그의 걸작 『中國科學技術史』 제1권에 참고문헌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 최대의 백과전서는 바로 도서집성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가 참조한 소장본의 판본은 1888년의 제2판으로 이것은 중국의 과학자인 竺可楨이 다신 친구에게 부탁하여 대신 구입해 준 것이다. 그는 “이것은 이 세상에 더할 나위 없이 珍貴한 禮物 중의 하나이다”라고 했으며, 또 “수 많은 서구학자들이 모두 이 백과전서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극찬했다. 확실히 그의 저작 가운데는 각 권마다 『도서집성』이 주요참고서로 인용되어 있으며, 그 속에 담겨진 풍부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sup>36)</sup>

이하 『도서집성』 및 『의부집성』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연구서 및 색인이나 목록을 일괄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未詳. 『古今圖書集成引用書目錄稿』. 1872.
- L. Giles 편저. 『An Alphabetical Index to the Chinese English Encyclopaedia』, 大英博物館 간행, 1911년.
- 日本 文部省 편. 『古今圖書集成 分類目錄』. 國定教科書共同販賣所, 1912년(大正1). 1책
- 瀧澤俊亮 편. 『古今圖書集成 分類索引』. 右文閣, 1933년(昭和8).
- 未詳. 『圖書集成分編第次目錄』. 1950. (국중 고전운영실)
- 楊家駱 편. 『古今圖書集成 續編初稿』. 鼎文書局, 1977년(民國66).
- 席子傑, 遲雙明 共編. 『古今圖書集成新編』. 青海人民出版社, 1998년. 전10권.
- 趙立勛. 『古今圖書集成醫部續錄』.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2.
- 齊秀梅. 萬古盛舉-古今圖書集成與四庫全書(清代社會文化叢書-史地卷1).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97.

#### 4. 전서의 편제와 속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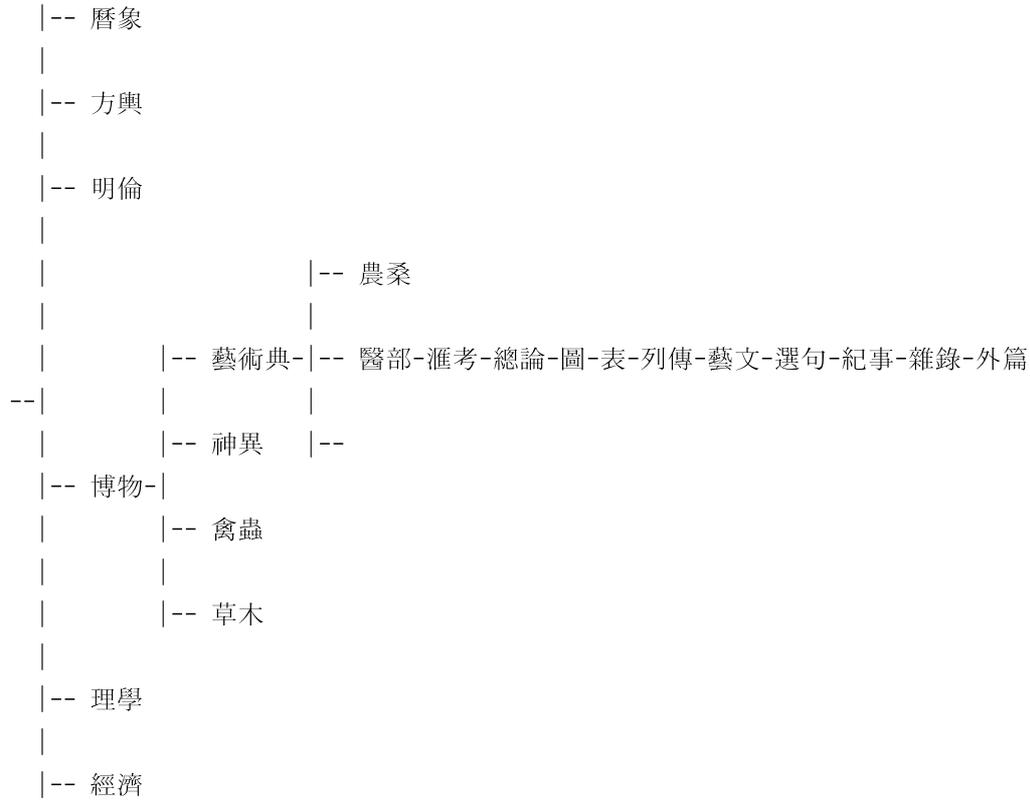
□ 차례와 내용

『圖書集成』 1만 권은 별도로 40권의 목록이 있고 내용은 6滙編, 32典, 6109部로 나뉘어져 있고 또 매 部 아래 滙考·總論·圖表·列傳·藝文·選句·紀事·雜錄·外編

36) 戚志芬. 『中國的類書, 政書和縱書』, p.94.

등의 항목을 포괄하고 있다. 수록한 내용은 흔히 원서를 편장, 문단 별로 抄寫하여 편입하고 注記로 출처를 밝혀 놓았는데 서명과 篇目, 및 作者를 표시해 놓아 검색하고 대조해 보기 편리하도록 하였다. 전서는 대략 1억6천만 자로 분량 면에서 영락대전에 버금간다. 이것은 역대 도서를 집대성한 고대 백과전서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sup>37)</sup>

醫部를 중심으로 『도서집성』의 편제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sup>38)</sup>



시중에서 손쉽게 구해볼 수 있는 通行本 『醫部全錄』의 편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권1~70      醫經註釋
- 권71~92    脈診, 外診法

37) 來新夏. 『中國古代圖書事業史』, pp.369-370.

38) 고금도서집성 전체의 부문별 구성과 체제는 裴芹. 古今圖書集成 研究, pp.43-63을 참조.

- 권93~216 臟腑와 身形  
 권217~358 內科諸疾病의 증상과 치료  
 권359~380 外科諸疾病의 증상과 치료  
 권381~400 婦人科諸疾病의 증상과 치료  
 권401~500 小兒科諸疾病의 증상과 치료  
 권501~520 總論 列傳 藝文 記事 雜錄 外編

즉, 권1에서 권500까지 태반의 분량이 醫部 중 滙考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여타 總論, 列傳, 藝文, 記事, 雜錄, 外編 등은 20권 분량의 부록처럼 곁들여진 형상을 띄고 있다.

#### □ 續編의 구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圖書集成』 전서에 포함된 의약 위생 내용에 있어서 ‘醫部’는 의약내용이 비교적 집중돼 있는 한 부분일 뿐,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도서집성』 전반에 걸친 심도 깊은 고찰과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는 이 책의 醫部에 들어 있는 대량의 의약 위생 내용 이외에 기타 각 編, 典, 部, 卷중에서 또 많은 양의 유관한 내용이 들어 있으며 후대 학자들에 의해 채집 재편되었다. 의부의 續錄은 모두 6권 분량으로 18전, 1093부, 1205권에 걸친 넓고 풍부한 의약 위생 내용을 채록한 것이다. 그 중에 전부 혹은 대부분은 의학 위생 내용(본초학 내용 제외)으로 모두 7전, 16부, 약 80만 자, 520종 문헌을 인용했다. 의학 기초, 위생 방역, 기공 유도, 양생 복식, 우생과 기형 등의 각 분야를 포함한다. 인용한 문헌에 있어서도 의약서적 외에 經, 史, 子, 集, 筆記雜纂과 釋, 道二藏 등의 대량의 방대한 서적과 문헌을 인용했다.

근래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도서집성』에 담겨져 있는 풍부하고 진귀한 의학 내용을 정리, 구두점을 달고 원문을 교감하여 『古今圖書集成 醫部續錄』을 펴냈다. 이 책은 이른바 ‘醫部全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한편, 의학 기초, 의학사, 문헌, 육아, 질병 예방, 양생 방면에서 중요한 학술 가치를 담고 있다. 동시에 『도서집성』 원문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sup>39)</sup>

이와 별도로 중국에서는 有史 이래 역대 문헌을 집대성한 최대의 類書 『中華大全』의 편찬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한다.<sup>40)</sup> 아울러 최근 소식에 의하면 『도서집성』의 후속편으로 1910년까지의 고전문헌을 동일 분류방식으로 정리하여 編配한 『續 古今圖書集成』의 편찬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sup>41)</sup>

39) 趙立勛. 古今圖書集成醫部續錄.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2.

40) 裴芹. 古今圖書集成 研究, p.63.

41) 韓·中 學術交流研討會(2002. 11. 中國中醫研究院) 醫史文獻研究室 朱建平과의 對談.

## 5. 歷代評說과 醫部集成의 의의

### □ 역대 제가의 評說

#### - 張燦珮의 評

이 책은 방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편찬체제 면에서 일부 독창성이 있어 국내외 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아쉽게도 원문을 임의로 산삭한 곳이 있고 교감이 정확치 않다. 인용문에는 잘못된 곳이나 착오로 인하여 빠진 곳이 여러 차례 눈이 띈다. 그러므로 후학 중에 ‘考證’할 자가 나타나 이 책의 오류를 考覈해야 한다.<sup>42)</sup>

#### - 李經緯·孫學威의 評: 『醫宗金鑑』과 『도서집성』의부의 비교

清代의 欽定 醫學書로는 乾隆朝의 『의종금감』이 가장 정밀하고 합당한 책으로 손꼽히며 실용에 도움이 된다. 당초 황제의 칙령으로 편찬하기 시작할 때에는 원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하기로 의논하였는데, 하나는 초심자의 입문서이고 다른 하나는 참고서로서의 기능이다. 뒤에 그 체계를 고쳐 전적으로 한 가지 방향으로만 편집하여 주요 체계를 잡고 上下深淺의 의미를 취하도록 했지만 참고편은 미처 완성치 못했다. 이 책은 참고서 용도로 쓰기에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金鑑과 서로 보완편으로 쓰인다. 채록한 서적이 비록 많지만 빠트리지 않고 모두 수집하여 포괄하기는 어려운 일이니 예컨대 『내경』은 겨우 馬蒔, 張志聰 두 사람의 주석만 수록하였고 난경은 겨우 滑壽의 本義만 수록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빠진 것이 더 많다. 맥법에 있어서는 王叔和의 『脈經』과 후대의 위작으로 알려진 脈訣을 나란히 함께 수록해 놓아 통일성이 없다. 각 문에 들어 있는 제가의 方論은 비교적 상세하게 갖추어져 있다. 부록으로 붙어있는 名醫列傳에 이르러서는 明 徐春甫의 『醫統大全』에 실려있는 ‘歷代名醫姓氏’를 기초로 삼아 수정 증보한 것이다. 명대 이후의 의인들은 대부분 지방지와 여러 책을 참조하여 채록함으로써 수록인물수가 몇 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인물선정이 고르지 않고 미심쩍은 경우도 있어 너무 남발한데 이르렀으나 李濂의 『醫史』에 실린 醫人傳 문장은 두루 섭렵하여 미치지 못하였다. 총론과 잡록은 고전적의 子部, 史部에서 채록하는 한편 아울러 한편으로 說部 종편까지 이르렀고 그 중 정밀한 문장은 가히 불만한 것이 많다. 전체를 종합해 보면 비록 사람의 의도대로 다 잘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內府에 秘藏된 전적에 근거하였으며, 간혹 민간에서 보기 힘든 서적이 있으니 窮究하면 의학설의 淵藪를 삼을 만하다. 만약 고전적이 당시에 구해 보기 어려운 것이 나중에 다 나온다면 그때 무렵에 한정하여 부득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42) 張燦珮, 『中醫古籍文獻學』, p.188.

金鑑의 주 편수자는 吳謙으로 전문의학자이기 때문에 그 책에도 역시 마음속에 깨친 바가 담겨져 있어 가히 準繩으로 삼을 만하다. 陳夢雷는 그저 문장가로서 다만 정수를 모으고 안배하여 편집하는 일에 종사했을 뿐이니 본래 두 책을 같은 입장에서 두고 저울질해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다만 두 책이 모두 한 시대를 대표할 巨帙이라는 점이 동일하고 특별히 의료제도 및 관장사무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 불만하다.<sup>43)</sup>

- 來新夏의 評: 3. 가치와 부족한 면

『도서집성』은 고전문헌에 대해 문을 나누고 종류별로 구분함으로서 전면적인 이해를 돕고 총괄하였기 때문에 도서사업사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수록문헌의 범위가 經史子集을 두루 거쳤을 뿐만 아니라 정리 과정 중에서 결코 빼낼 수 없는 부분과 문단만을 채집하여 수록함으로써 대량의 원시자료를 보존하였기 때문에 고전문헌의 보존과 전승에 크나 큰 공헌을 이룩하였다. 그 다음으로 이 책의 體例가 完善하고 분류가 상세하여 학자들에게도 전문 학술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해당하는 서적의 모든 類目은 각기 기본적으로 한 문의 전문 역사적 자료를 모아둔 회편인 셈이다. 학자들은 자기만의 학습방법에 따라 전체 중의 유관한 부분의 典, 部를 찾아보고 그 분야의 개략적인 연혁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런 뒤에 다시 해당 서적 중에 표시된 출처를 찾아 관련 서적을 검색함으로써 한층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분야의 역사자료 滙編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지침서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집성이 영락대전에 비교하여 3세기 뒤늦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大典에 수록되지 못한 明代와 淸初의 적지 않은 문헌이 보존되었고 輯佚과 校勘 등의 방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컨대 明末 宋應星의 『天工開物』은 과학기술분야 고전명저임에도 불구하고 청조 중엽 이후에 자취를 감추어 찾아보기 어려웠고 『四庫全書』 및 『擘經室集』에 모두 수록되지 못했다. 근대 사람 陶湘은 일찍이 集成에 실린 것을 근거하여 摹印하여 중간한 바 있다. 解放 후 북경도서관에서 明崇禎10년(1637)의 原刻本 『천공개물』을 찾았는데 집성에 실린 것이 거의 원각본에 가깝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 明末 과학가 徐光啓는 일찍이 『農遺雜疏』를 지었는데 그 중에 甘藷疏 蕪菁疏 등 농학전문저작이 들어 있어 청나라 초기까지 남아 徐乾學의 傳是樓書目과 『明史』·藝文志의 子部·農家類에 나뉘어 있었다. 다만 뒤에 오면서 失傳되어 『도서집성』·박물회편·草木典 안에 甘藷疏序가 들어 있어 『農遺雜

43) 李經緯·孫學威. 四庫全書總目提要 醫家類及續編.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2. pp.202-203.의 圖書集成醫部全錄五百二十卷.

疏』의 한 편린만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책은 명초 이전의 한 무리의 이미 실전된 저작과 문장들을 집록하는 역할도 한다. 예를 들면 嘉慶 道光 연간의 저명한 학자 張金吾는 일찍이 吳興鮑의 知不足齋에 이르러 조정에서 頒賜한 『圖書集成』을 빌려 읽으면서 선후 여러 차례에 걸쳐 金代 遺文을 여러 편 발굴하였고 이것을 金文最에 수록하였다. 이외에도 이 책이 청초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수록한 인용서의 내용이 비교적 이른 시기의 판본을 사용하고 있고 고문헌의 원모가 남아 있어 乾隆 시기 서적 정리작업 시 이루어진 복잡한 忌諱나 서적상에서 개변한 것들이 들어 있지 않아 고문헌을 교감할 때 중요하게 쓰인다.

『도서집성』의 결함과 부족한 점은 다음과 같다.

1) 편찬자가 秘府의 장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淸初에 전해진 서적들을 모두 수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2) 인용문 중에 錯誤와 脫漏가 있는 점. 이 책이 『永樂大全』에 비하여 3세기 가량 늦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량 면에서 대전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영락대전』 중 반수 이상의 책이 여기에 수록되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더욱이 대전이 散逸된 이후 허다한 서적들이 잇달아 망실되어 조금이라도 애석한 마음이 있었으면 편수 시에 수습할 수 있었을 터인데 전혀 『영락대전』 중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이 책의 정식 편찬기간이 비교적 짧고 또 陳夢雷 한 사람의 주관에만 매달려 고용한 서생이 유관 篇章과 문단을 채록할 적에 脫漏와 착오를 일으킨 곳이 적지 않았는데 진땀도 역시 다시 개정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할 때 이 책은 현존 유서 중 최대 규모이자 용도가 가장 광범위하고 체제가 가장 完善한 유서라고 할 수 있다.<sup>44)</sup>

- 戚志芬의 評

『도서집성』은 분량이 너무 많고 수록한 자료가 지나치게 많지만 조리가 정연하여 繁多해도 亂雜하지 않다. 全書 6회편 중 명륜회편이 가장 많아 전체의 4/1을 점하고 있으며, 방여회편이 다음이고 경제회편이 또 그 다음, 역상회편이 가장 적다. 32전중 職方典이 가장 많아 전체의 약 6/1이 조금 못 되며 건상전은 가장 적어 겨우 전체의 1%를 점하고 있다. 6109부 중 최대의 분량은 바로 醫部인데 전서의 약 20/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소 분량의 부는 邊裔典의 內部로 단 12행에 불과하다. 매부는 滙考·總論·圖·表·列傳·藝文·選句·紀事·雜錄, 外編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滙考가 주체이고 總論, 列傳이 그 다음이다. 편찬자는 생각하기에 몇 가지 황당하고 믿기 어려운 기사가 있을 경우, 채록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고 빠자니 遺漏가 있을까 봐 두려운 것은 外編에 넣어두었다.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였으며, 번잡하고 간단한 것이 동일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滙考는 다시 세분하지 않았으며 단지 자료가 많은 것

44) 來新夏. 中國古代圖書事業史. 上海:上海人民出版社, 1990, pp.370-371.

만 다시 分門하였다. 예컨대 職方典은 각 省, 府 아래 滙考를 두었는데 또 沿革考와 疆域考 등으로 나누어 문을 설치했다. …… 중략 ……

종합적으로 『도서집성』의 내용은 고금을 관철하고 만상을 포괄하여 편찬체제가 세밀하며 또한 도표와 문장이 풍부하고 다양한 기능이 부가되어 있어 찾아보기가 비교적 간편하다. 편찬시기 또한 현대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세상에 나온 이후로 세계 각국의 학자들로부터 진기하게 여겨졌다.<sup>45)</sup>

이와 같이 최대의 찬사를 보내며 賞讚을 아끼지 않았던 戚志芬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결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연하게도 이 책은 18세기 초기에 지어진 유서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그 편집체계의 수준은 당시 최고의 정점에 도달해 있었지만 다른 유서와 마찬가지로 신분계급과 시대적 한계를 갖고 있어 본래부터 내재된 결점을 면키 어렵다. 봉건시대의 正統관념과 계급적 편견으로 일관하여 진부하고 미신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또 유서의 특성상 부류를 나누어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안배해야 하는데 다만 당시의 분류와 현대의 분류기준이 동일치 않아 오늘날의 시각에선 부적당한 곳이 많이 있으며 어떤 곳은 매우 곤란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火와 烟은 天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乾象典에 들어있고 筆墨紙硯 등 文房用品은 이학회편 字學典에 열거되어 있다. 農, 商, 魚, 樵, 牧, 獵, 醫 심지어는 乞丐, 刺客, 娼妓 등까지도 박물회편 예술전에 배속해 놓았다. …… 중략 …… 또 때에 따라서는 허다한 명구들을 빠트리고 수록치 않은 곳도 적지 않은데 문헌을 인용하거나 채록할 때 오류 혹은 탈락한 경우가 있고 임의로 빼버리거나 引文의 出處를 상세히 밝히지 않아 빠진 곳, 혹은 채록시의 착오를 일으킨 곳도 간혹 발견된다.”<sup>46)</sup>

위와 같은 결점은 마찬가지로 조셉 니담에 의해서도 지적되고 있다.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편집자가 인용문을 초록했는지 아닌지, 또 어느 부분을 그렇게 했는지를 명시하지 않았고, 빠진 부분을 그대로 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원본과의 대조가 필요하다.”<sup>47)</sup>

의학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는 아직 눈에 띄는 것이 별로 없으며, 전문가의 비판적인 논평이 필요한 부분이다.

45) 戚志芬. 中國的類書, 政書和縱書. 北京: 商務印書館, 1996. pp.91-92.

46) 戚志芬. 위의 책, pp.95-96.

47) 조셉 니담 원저, 李錫浩 등역. 中國의 科學과 文明. 서울: 乙酉文化社, 1985. 3장 문헌노트 (c) 百科全書, 辭書, 그 밖의 참고서, p.57.

“고금도서집성은 중국 현존 최대 규모이자 수록한 내용이 가장 광범위한 고대 대형 백과전서이다.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위생 내용도 역시 매우 광범위하다.”<sup>48)</sup>

□ 醫部集成이 우리 나라에서 활용된 예

- 『醫門寶鑑』:

1724(경종4년) 岐下 周命臣이 지은 『醫門寶鑑』의 引用書目에는 ‘醫部集錄’이란 서명이 등장한다. 이 서명은 『中國醫籍通考』나 『朝鮮醫書誌』에 나타나지 않고 유서의 일부를 약칭한 것이라면 『도서집성』의 부분을 지칭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도입시기와 이 책의 편찬연대가 相違하다는 점이다. 1726년 活字로 인출되어 세상에 나온 『도서집성』이 未刊行 상태에서 2년이나 앞서 조선의 『의문보감』에 미리 인용되기란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이 존재한다. 『의문보감』은 당대에 바로 간행된 것이 아니고 1918년이 되어서야 內醫 李命錫의 校訂을 거쳐 滙東書館에서 8권1책의 연활자본으로 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 30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뒤에 원고를 정리하면서 상당 부분 증보와 개정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이때 후대의 새로운 서적들이 다수 참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의문보감』 凡例의 마지막 구절은 이명석이 교정을 거친 후에 添錄한 것이 분명한데 ‘周氏舊本’이란 표현으로 원본과 교정본을 구분하여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서명에 있어서 다소간 변형된 異稱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른 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醫方類聚』의 경우, ‘醫學類聚’ 혹은 ‘醫書類抄’ 등의 다른 이름이 등장한다. 하지만 역시 간략서명만 같고 추정을 계속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더 이상 논하지 않기로 한다.

『도서집성』이 의학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쓰여진 것은 아무래도 ‘仁濟志’가 가장 먼저일 것 같다. 인제지는 徐有槩의 『林園經濟十六志』 중의 한편으로 ‘임원십육지’ 혹은 ‘임원경제지’로도 불리우는 방대한 박물 백과전서(총114권52책) 가운데 본격적인 의학편으로 이것만해도 28권14책 분량에 달한다. 저자인 서유구는 『도서집성』을 도입해 온 서호수의 친아들로 徐命膺으로부터 이어지는 家學을 대물림하여 정조연간 문예부흥을 꽃피웠던 주역 중의 한 사람이다.

『임원경제지』에는 (欽定)古今圖書集成이란 정식 명칭이 아니라 ‘圖書集成’이란 약칭으로 표기되어 있다. ‘林園十六志引用書目’의 子部の 뒤쪽(66板)에는 太平御覽, 事物記原, 山堂肆考, 三才圖會, 淵鑑類函 등 중국의 역대 유명한 유서와 함께 등재되어 있다. 또 일본의 和漢三才圖會 그리고 조선의 芝峯類說과 類苑叢寶도 함께 실려 있어 한·중·일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백과전서와 각 방면의 유서를 구비해 놓고 종합하여 뛰어난 저작물을 산출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찬술 조대나 저자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sup>49)</sup> 또 인제지 본문 안에서는 [圖書集成]이란 출전표기를 달고 본문

48) 趙立勛. 古今圖書集成醫部續錄.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2.

49) 서유구. 임원경제지(一), [서유구전집2], 보경문화사, 1983, p.33.

중에 인용되어 있다.<sup>50)</sup>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방대한 전서는 왕실도서관에 소장된 秘書요 규장각 閣臣이나 극소수의 출입자만이 볼 수 있었기에 민간의 의원들은 대부분 이 책의 존재조차 모르는 상태였을 것이므로 광범위하게 응용되었을 것으로 보기에 어렵다.

흔하지는 않지만 조선 말기 이 전서는 한의계의 획을 긋는 중요한 문헌에 다시금 등장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惠庵 黃度淵(1807~1884)의 『醫宗損益』이다. 1867년(고종4년)에 12권7책의 적지 않은 분량으로 간행된 이 책의 引用諸書에는 총105종의 국내의 의학문헌이 인용서로 등재되어 있는데, 그 중 90번째 인용서로 『圖書集成』이란 書名이 보인다. 조선에 들어온 지 이미 90년이 흐른 시점이지만 그가 어떻게 왕실 소장의 이 전서를 참고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 맺음말

이상 『도서집성』의 編纂과 刊行 그리고 朝鮮의 導入 過程 및 版本과 傳本 및 유포 현황, 全書의 體制, 歷代評說과 醫部集成의 意義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흔히 ‘醫部全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古今圖書集成』·醫部는 淸 황실의 지원아래 방대한 규모의 편찬사업을 거쳐 이룩되었던 『欽定古今圖書集成』의 일부로 의학분야에 있어서도 18세기까지의 동양의학의 성과를 집대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당대 최고의 지적 수준을 담고 200여 년간 최고의 귀중본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 가치인식과 활용도 측면에서 점차 외면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 방대한 고전의학서가 갖고있는 역사적 의미를 규정하고 나아가 편제 분석, 판본 조사 등을 통해 전서의 규모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것은 곧 고전문헌 『圖書集成』이 갖는 의미이자 새롭게 선보일 전산 지식정보시스템으로서의 디지털 醫部集成에 부여해야 할 의의를 규정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도서집성』과 같은 방대한 분량의 類書 혹은 백과전서의 출판은 고대의 문화유산 그 자체의 가치 기준 이외에도 후대에 여러 방면에 걸친 영향성을 갖게 된다. 아울러 그것은 당대 최고의 문화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항상 전력을 기울여 만들어진 역사문화의 기록이다. 중국에서의 출판 과정은 조선의 『왕조실록』이나 『의방유취』의 편찬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역사적 의미와 시행착오가 거듭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조선의 도입 이후 『임원경제지』와 같은 실용서의 편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50) 韓國醫學大系(45) p.163, p.169 등 참조.

또 대형 고문헌의 편제 분석과 구성체계의 파악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가장 선행적인 작업으로 일목요연한 체제와 탄탄한 구성요소가 디지털화를 위한 선행조건임을 알 수 있다. 歷代評說과 의의를 통해 개인 저작이 갖는 한계와 끊임없는 응축과 부연의 과정이 곧 학문 발전의 고전적 양식이자 역사발전의 순환과정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 參考文獻

- 余瀛熬·李經緯. 『中醫文獻辭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00.
- 裘沛然. 『中國醫籍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 徐有渠. 『林園經濟志』(一), [徐有渠全集2], 서울: 保慶文化社, 1983.
- 朝光社 편. 『朝鮮名人傳』(下), 서울: 朝光社, 1948.
- 張燦理. 『中醫古籍文獻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 유홍준. 『阮堂評傳』. 서울: 학고재, 2002.
- 李經緯·孫學威. 『四庫全書總目提要 醫家類及續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2.
- 趙立勛. 『古今圖書集成醫部續錄』.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2.
- 黃愛平. 『四庫全書纂修研究』(清史研究縱書).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9.
- 來新夏等著. 『中國古代圖書事業史』.(中國文化史縱書)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0.
-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 魏隱儒. 『古籍版本鑑賞』.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1997.
- 戚志芬. 『中國的類書, 政書和縱書』(中國文化史知識縱書). 北京: 商務印書館, 1996.
- 조셉 니담 원저, 李錫浩 등譯. 『中國의 科學과 文明』. 서울: 乙酉文化社, 1985.
- 張僑之, 沈起煒, 劉德重 주편. 『中國歷代人名大辭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 邊麟錫. 「四庫全書와 韓國人 副總裁 金簡에 대하여」. 東洋史學研究(제10집), 1976.
- 卞麟錫. 「四庫全書와 韓國人 副總裁 金簡에 대하여」, 東洋사학연구, 제10집, 1976.
- 劉世鉉. 「弓人爲弓에 대한 小考-古今圖書集成의 기록을 바탕으로」, 육사학예지, 5호, 1997.
- 李鍾默. 「조선시대 王室圖書의 收藏에 대하여」, 韓國書誌學會 추계학술발표, 2002.
- 白上龍·安相佑. 「醫部全錄의 編輯體制와 主題分類」.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8/1), 2002.
- 「圖書集成」. 每日申報, 1935년(昭和10)1월31일자.